



김주형, DP 월드투어 프랑스 오픈 공동 6위
김주형이 25일 프랑스 파리 근교 르 골프 나쇼날(파71)에서 열린 DP 월드 투어 프랑스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슈퍼 손데이!

손흥민, 아스널전 시즌 4·5호 골
토틀넘서 9시즌 만에 통산 150골
유럽 무대 200호에 1골차 접근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손흥민(토틀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9시즌 만에 개인 통산 '150골 고지'에 도달했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아스널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3-2024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4·5호 골을 잇달아 터트리며 토틀넘의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번 멀티골로 손흥민은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9시즌 동안 공식전 379경기(정규리그 274경기 108골·FA컵 28경기 14골·리그컵 16경기 4골·유럽 클럽대항전 61경기 24골)에 나서서 150골을 채웠다.

손흥민은 토틀넘 역대 통산 득점 순위에서 해리 케인(280골), 지미 그리브스(266골), 보비 스미스(208골), 마틴 치버스(174골), 클리프 존스(159골)에 이어 6위를 달리고 있다.

토틀넘 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캡틴이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150골을 기록했다"라며 그동안의 골 세리머니 장면을 모은 게시물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2021년 1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17라운드에서 골맛을 보며 토틀넘 공식전에서 100호골을 터트렸고, 그로부터 2년 8개월여 만에 '150골 고지'에 올라섰다.

한편,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2골을 보태면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골을 기록, 200호 골에도 1골 차로 다가섰다.



토틀넘의 손흥민이 24일(한국시간) 영국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3-2024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5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성 난 "1골 1도움" 미트윌란 극적인 2-1 승리 견인

'레게머리'로 파격 변신한 조규성(미트윌란)이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앞세워 2경기 연속골과 시즌 5호골의 겹경사를 맞봤다.

조규성은 25일(한국시간)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덴

마크 수페르리가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오덴세 BK를 상대로 후반 6분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보더니 후반 추가시간 도움까지 기록하며 팀의 극적인 2-1 승리를 연출했다.

지난 16일 8라운드 비보르전에서 헤더로 득점했던 조규성은 2경기 연속골을 작렬, 자신의 시즌 득점을 5골로 늘리며 날카로운 골 감각을 과시했다.

조규성의 멀티 공격포인트를 앞세운 미

트윌란은 5경기째 만에 귀중한 승리를 따내며 이번 시즌 4승 2무 3패(승점 14)로 5위에 랭크됐다.

미트윌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조규성은 레게머리로 변신해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소파스코어는 경기가 끝난 뒤 조규성에 게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7.8점의 평점을 줬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

다산기공이 함께 합니다!



차세대 돌격소총 DSAR-15PQ
대한민국 국방의 창끝 전투력!
저희 다산이 책임지겠습니다!